

일파만파

KT새노조 소식지 2014.3.

www.humankt.org

VOL. 18



#1. 소통이 곧 혁신이다

#2. 질문에 답합니다

#3. KT 4대 악재로 본 위기의 구조와 소통

소통이 곧 혁신이다



총체적 위기! 지금의 KT 상태는 더도 덜도 아닌 딱 이 말대로다. 1200만 개인정보유출, 사상 첫 연간 적자, 1년 연속 줄고 있는 무선 가입자, 3000억원 대출 사기와 자회사 법정관리 신청 등. 그런데 이런 명백한 경영 위기 앞에 “혁신하자”는 현장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지도 않다.

어쩌면 지금 KT 현장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관망적 자세와 냉소야말로 KT 위기의 심각성을 웅변해주는 것일지 모른다.

위기는 경쟁에서 밀린 때문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문제

민영화 이후 KT는 늘 위기설을 달고 살았다. 유선 중심의 사업구조, 고령화된 KT 노동자의 구성 등은 늘 위기를 설명하는 단골 메뉴였고 자연스레 인건비 감축과 사업다각화가 유일한 혁신의 대안으로 얘기되곤 했다. 모든 위기의 원인은 경쟁력 없는 KT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지적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석채 비리경영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KT 위기의 원인은 결코 KT의 통신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내부의 잘못된 경영 시스템 때문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1200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BIT 시스템의 개발 실패야말로 지금 KT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준다. 단언컨데 KT의 경영위기는 외부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데서 발생한 게 아니라 내부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놓인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위기는 일시적 감원 등의 쇼크 요법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다.

혁신이 우선이다

그래서 혁신이 우선이다. 이석채의 불명예 퇴진 이후 조직 안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런 보신주의야 말로 KT의 절대절명의 혁신의 기회를 다시 무력화 시키려는 요설에 불과하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황 회장이 이석채와 다른 게 뭐냐”는 비아냥이 들리기도 한다. 솔직히 그동안 KT 내에서 늘 따라다니던 위기설은 결국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그 결과가 직원들의 위기 불감증 내지 냉소이다. 그래서 황창규 회장의 혁신에 대해서도 기대 자체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KT 노동자들이 혁신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혁신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적 냉소에 물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통과 함께 하는 혁신이어야

늘 현장의 냉소는 혁신 동력의 상실로 이어졌고 이는 혁신을 명예퇴직 같은 단기처방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현장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다시 혁신에 대한 냉소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KT의 화두는 “위기와 혁신”이 아니라, “위기와 소통”이라고 믿는다. CEO가 잘 다듬어진 “혁신 구상”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EO의 혁신 의지”를 소통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황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KT새노조와 대화해야

소통은 지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소통은 양방향 구조이다. 서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는 게 소통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황창규 회장에게 다시 한번 KT새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한다. 우리 KT새노조는 이사회, 경영진 모두가 이석채 비리경영에 침묵할 때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 ‘그의 비리경영이 KT를 위기에 빠뜨릴 것’임을 세상에 알렸다. 우리 KT새노조는 제 2노조이기 이전에 이석채 비리경영으로부터 회사를 살리고자 했던 많은 KT 직원들의 혁신 열정의 집합체이다. 그런 KT새노조와 소통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혁신이 가능하단 말인가!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자!

모든 KT 노동자들에게 호소한다. 정말 회사 혁신을 위해 침묵의 카르텔을 깨자. 경영진과 제대로 소통하자!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느끼는 혁신해야 할 과제들을 사내게시판에 올리자! 팀장, 지사장들의 허수영업 강요, 불편부당한 예산집행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자. 최근 일부 CS 컨설팅 직군들의 급여 미지급 문제가 한 직원의 용기 있는 글로 해결된 것처럼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스스로 경영진과 소통하자!

노무관리 등 낡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자!

이 말은 황창규 회장이 직원들에게 요구한 것이기도 하다. 더 이상 “노조가 썩었다”느니, “조합비가 아깝다”느니, "노무관리 라인 때문에 제대로 투표도 못한다"고 툭툭거릴 게 아니라, 노조에 대해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자! 그리고 눈치 때문에 관행적으로 가입했다면 과감하게 탈퇴하자! 또한 노조 문제로 인해 관리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면 당당히 KT새노조에 신고해 달라!



혁신의 성패는 현장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

12개월 연속 가입자 감소, 3000억원 사기대출, BIT 일부 폐기,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지금의 KT의 위기는 케케묵은 관행들을 드러내고 혁신할 때 해결될 수 있다. CEO의 혁신의지와 현장의 혁신의지가 만날 때 진정한 혁신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통이 곧 혁신이다. 혁신의 성패는 황창규 회장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황창규 회장과 현장이 얼마나 가슴을 열고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질문에 답합니다

최근 KT새노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KT노조 탈퇴 방법입니다. 그 이유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은 “조합비가 아깝다”입니다. 아마도 많은 KT노동자들이 이석채의 비리 경영에 대해 비판의 소리 한번 내지 못한 KT노조에 대해 결정적으로 실망을 많이 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KT새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하기에는 아직 우리에게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도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KT노조를 탈퇴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① KT새노조에 이메일(newnojo@naver.com)을 통해 본인의 이름과 소속을 명기해서 KT새노조 가입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② KT새노조에서 해당 메일로 발송해준 노조가입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③ KT새노조 가입 확인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KT노조로부터 탈퇴서를 받습니다.
- ④ KT새노조 활동의 의사가 없는 분은 그 이후 KT새노조 탈퇴를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 88년12월 도입된 유니온숍 제도로 KT노동자는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려면 타 노조 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통이 대안이다” KT 4대 악재로 본 위기의 구조와 소통

1 또 털린 고객정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1200만명 KT 고객정보 유출

해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초보 해커에게 KT의 고객정보가 털렸다.

그 규모는 무려...

1,200만명



2012년 "KT 870만 고객정보 유출"

- 당시 표현명 사장, 공개 사과 통해 재발방지 약속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회사 입장

▶ 고객정보 유출 관련 보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최근 경찰에서 발표한 개인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언론을 통해 깊은 사과 표명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리며 추후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 보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하였으며 경찰이 개인정보침해 범죄 조사를 제포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되었으며, 추가적인 유출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법 TM을 목적으로 범죄조직 일당이 조직적으로 휴대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기번일 등 TM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빼내어 무단이득을 얻은 사고입니다. 또한 우리 임직원들의 휴대전화번호도 불법히 유출되었으나, 전량 회수되어 추가적인 유출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 수사발표와 같이 이번 정보 유출은 기존의 단기간 대량 유출방식과 달리 매일 소량씩 장기적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유출사실 인지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회사는 유출사실 신고 후 신속하게 불법접근 시도를 차단하는 등 영업시스템에 대한 보안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경찰과 공조하여 유출경로에 대해 심층 분석 중입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 시스템에 대한 개편작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보안 시스템 및 프로세스와 전 직원의 보안의식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 시스템에 대한 개편작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보안
시스템 및 프로세스와 전
직원의 보안의식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지만 그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12년 당시

최고정보책임자(CIO) 송정희
전 부사장

올해 1월까지 곳곳이 자리를 지키다가
황창규 회장 취임 직후 물러남
- 당시 최고보안책임자(CSO) 이상용
상무는 여전히 CSO로 근무 중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



휴대폰 인증 >

이번 사건으로 KT는 민사 피해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KT에 대해 본인인증기관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보유출로 인해 채권발행에도 제동이 걸려 돈줄도 막혔다. 이렇듯
줄만 있으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왜곡된 경영구조는 KT 라는 기업을
결정적으로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정보유출 사고의 원인은 해킹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 혁신의 부재

'KT 혁신' 주문한 황창규...책임자 문책은 없었다

서울신문 - 2014. 3. 10.

황창규 [기자수첩] KT의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당장 박탈하라 - Chosunbiz .
신'을 조선일보 - 2014. 3. 10.

KT(005930) 자금조달까지 막힌 KT 황창규號 '시계제로' - 연합뉴스
소 등 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4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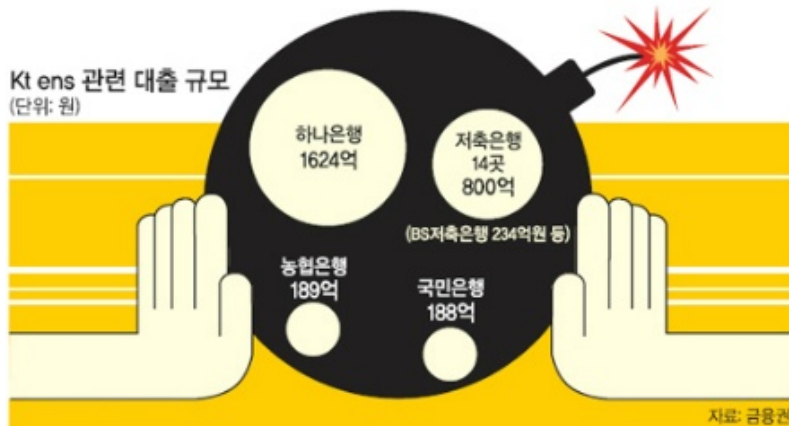
3일 전 제동=개인정보 유출 'KT' 법인, 형사처벌 받을 듯 - 위클리오늘
제동= 위클리오늘 - 2014. 3. 10.

[위클리오늘=강준호 기자] 'KT' 법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
씩 약 12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2 KT ENS 사기 대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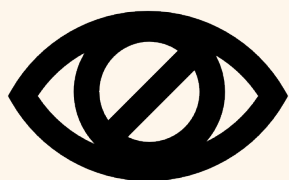
KT ENS 직원 연루, 1조 8000억원 사기 대출

KT ENS 직원이 회사 직인을 도용하여 사기범들에게 가짜 대출서류를 만들어줘 곳곳의 은행들로부터 무려 1조 8000억원 사기 대출 받음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금액
2900억여원

대출사기가 진행되던 시점은 이석채가 정성복 전 부회장을 끌어들여 그룹 윤리경영을 강화한답시고 각 계열사에 까지 본사에서 감사를 파견하던 시기와 일치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들의 윤리경영은
사실상 눈뜬 장님

- 정작 잡아야 할 비리는 못 잡고 직원들의 사소한
꼬투리나 잡아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

직원들은 이석채 - 정성복의 윤리경영을 “공포경영”이라고 불렀고, 공포 분위기 때문에 서로 속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설혹 옆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른 척 하게 됐고, 이러한 개별화로 인해 사기대출 사건이 터질 때까지도 아무도 그 직원을 눈 여겨 본 사람조차 없었다.

공포경영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결국 대형사고로

사기대출로 인해 돈을 떼이게 된 은행들 강력 반발

kt ens

법정관리 신청...



"(본체인) KT가 꼬리자르기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했다."

결국 이 사기대출액 상환 문제는 KT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있을까! 5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허위서류 작성, 인감도용이 개인의 일탈의 문제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까! 공포경영이 빚은 소통의 부재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3 결국 폭탄이 되고 만 BIT

BIT 개발비 2,700억원 손실 처리, 창사 이래 첫 적자

이석채 전 회장의 최고 야심작의 하나로 손꼽히던 BIT. 무수한 비리 의혹에 시달리던 그 BIT의 핵심인 BSS에 대해 폐기 결정이 내려졌다. 물론 그 중 개발비 2700억원은 손실로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KT는 창사 이래 첫 연간적자를 기록했다.

2010.11

"4800억원 투자, 전산통합 하겠다."

2013.09

"9000억원에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2014.01

"500억원 예산들여 폐기할지 보완할지 검토 중"

2014.02

"BIT의 핵심 시스템인 BSS를 전면 재설계 결정"

2014.03

"KT 창사 이래 첫 적자 기록"

이를 두고 업계에서 뒷말이 무성하지만...



"(갑을 관계가 불평등한 한국사회에서) KT라는 대표적 갑이 발주한 전산시스템이 최종 불용 처분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나"

"KT가 얼마나 무능한 기업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KT 내부에서는 진작에
“BIT=돈 먹는 하마”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예고된 참사인 것.

“BIT 개발 과정에서 내부가 철저히 배제되었다. 대표적 이석채 낙하산인 김홍진 전 부사장 등의 주도로 철저히 외부업체를 동원하여 사업을 진행시켰다. 당연히 현장과 괴리되었고 이 때부터 실패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KT새노조에 BIT
문제를 제보했던
전직 임원

게다가 낙하산 중심의 “패거리 문화”가 이 시스템에 대한 내부의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일차 개통 이후에도 “사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는 “업무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원래 KT들의 불만”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세계적 ICT 강국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 격인 ICT 기업 KT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사건은 결국 현장과 괴리된 경영진의 오판이 빚은 참극이라는 것이다.

4 인공위성 불법 매각 사건

3000억원 들여 개발한 위성, 5억원에 해외불법 매각



KT는 국가전략물자인 무궁화 위성을 비밀리에 매각했다. 그리고 매각을 주도한 당사자들 중 일부는 바로 인공위성을 KT로부터 구매한 홍콩의 업체로 이직 했다.

모든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절차는 깡그리 무시됐다. 당연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큰 파문이 일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KT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질타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



“KT의 인공위성 매각은 불법이며 무효이므로 KT가 되 사오도록 조치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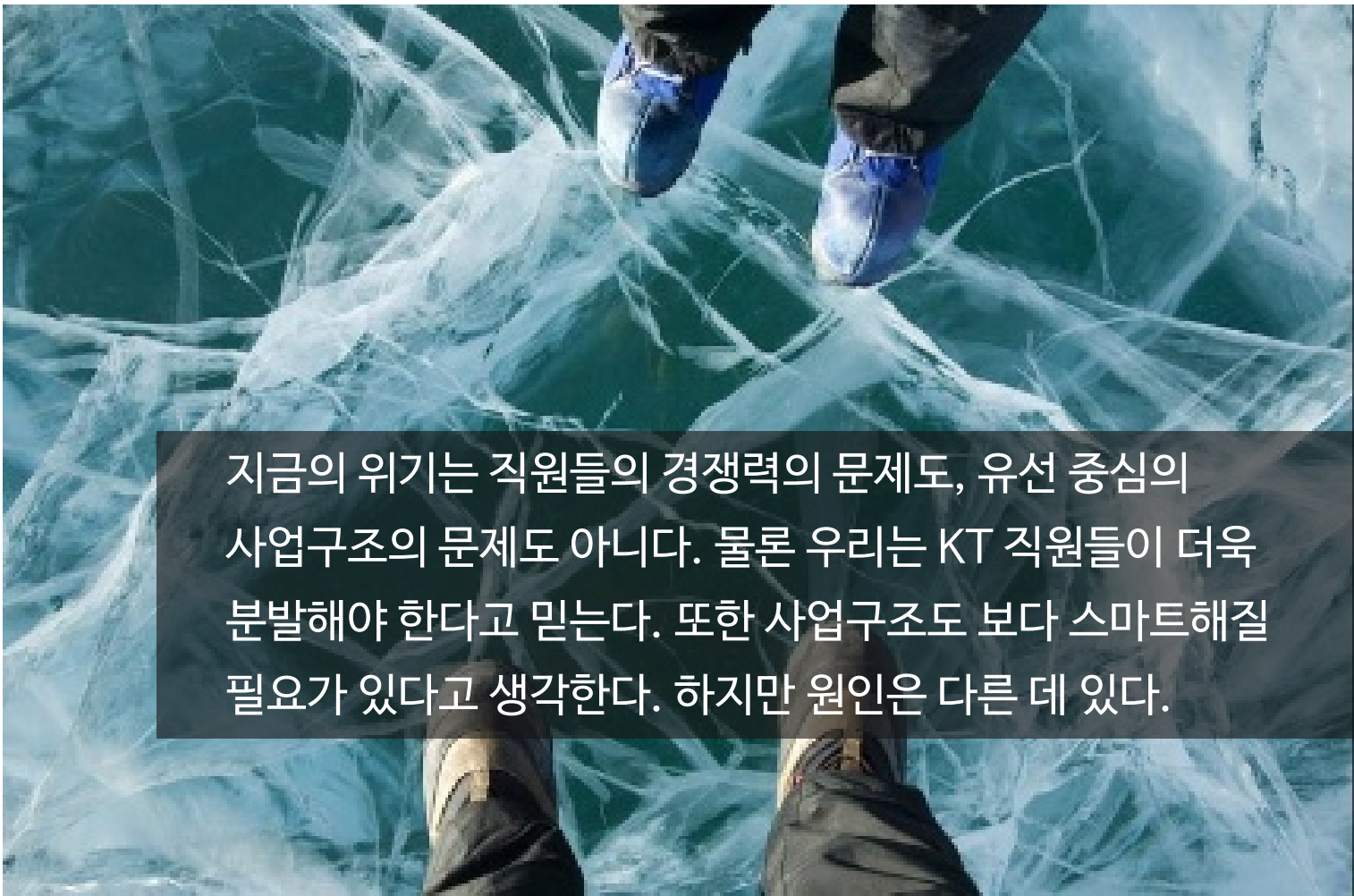
문제는 되사오는 데 따르는 비용

현재 KT의 인공위성을 구매한 홍콩 업체는 5억원에 구입한 무궁화 위성 3호 만으로도 약 10년에 걸쳐 500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업체가 계약 무효화에 순순히 응해줄 가능성은 없다.

이와 관련 현재 뉴욕에 있는 국제상사재판소에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비싼 값에 KT가 되사오거나 혹은 포기해야 할 형편이란다.

KT 인공위성 이슈는 2014년 국감에서도 핫이슈가 될 것이다. 비싸게 되사오면 되사오는 대로, 못 사오면 못 사오는 대로 KT는 다시 한번 “국부유출”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황창규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야 할지도 모른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KT를 위기로 몰아넣은 4대 악재의 원인



지금의 위기는 직원들의 경쟁력의 문제도, 유선 중심의 사업구조의 문제도 아니다. 물론 우리는 KT 직원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사업구조도 보다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인은 다른 데 있다.

KT새노조가 진단한 위기 원인

- 1.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기업문화
- 2. 상명하달만 있을 뿐인 현장과 괴리된 소통부재의 기업문화
- 3. 패거리를 통해 일체의 비판을 불허하고 억압하는 공포경영

KT새노조가 믿는 대안은
늘 강조됐지만 단 한번도 실행된 바 없는
현장과의 진지한 소통입니다.